

개성공단 · 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

(윤 유 선 의원 대표발의)

안건 번호	2019 - 99
----------	-----------

발의년월일: 2019. 11. .

발의자 : 윤유선, 이의걸, 이충현, 신낙형
정정희, 황영호, 김현희, 박성호
강선영, 김용원, 황동현, 김병진
이종숙, 김동협, 김성한, 김선경
송영섭, 송순효, 박주선, 최동철
경기문, 이충숙

1. 의결주문

-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6.15 남북공동선언을 계기로 시작되었던 개성공단이 중단된지 4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지 12년이 되었음
- 남북은 2018년 9.19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개최된 북미정상회담과 남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기여하였으나 10월 5일 스톡홀름 북미 실무회담이 결렬되면서 북미간 관계 개선도 정체된 상태임
- 정체된 북미 대화와 북한 정부의 남북대화 거부 국면이지만 남과 북은 한반도 평화 통일의 절대적 이해 당사자이므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대화와 협력이 매우 시급하다 할 것이므로

- 남북 간 경제 협력과 문화 교류 구축의 상징으로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는 바이므로 이에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을 제안하고자 함

3. 결의문 : 붙임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결의문

6.15 남북공동선언을 계기로 시작되었던 개성공단이 중단된지 4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지 12년이 되었다.

지난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개최된 북미정상회담과 남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기여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하여 앞으로도 남·북·미간 실무협상이 원활히 진행되어 한반도의 비핵화와 남북간 평화정착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북미간 비핵화 협상의 중요성과 함께 남과 북은 한반도 평화 통일의 절대적 이해 당사자이므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남북간 대화와 협력이 매우 시급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한 경제 협력과 문화 교류의 초석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재개 필요성에 강서구의회는 깊이 공감하는 바이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재개는 남과 북이 경제 협력을 통해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한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되살리는 길이라 할 것이다.

이에 강서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강서구의회는 한반도 평화 통일의 절대적 당사자인 정부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하여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강서구의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간 대화와 협력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하나, 강서구의회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모든 국민들이 뜻을 모으고 전국 각지, 세계 각국이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12월 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일동